

조치쿠쿄(구 후지이 고지 자택)

조치쿠쿄는 건축가 후지이 고지(1888~1938년)가 자신의 주거로 설계한 건축물로 1928년에 지어졌습니다. 근대적이며 서양적, 그리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일본 가옥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목조 모더니즘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지이는 일본의 기후 풍토에 가장 적절한 집 짓기를 추구하여 그 일련의 주택 개량 프로젝트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 조치쿠쿄를 완성했습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살기 편함과 쾌적함을 향상시키는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일본의 건축 연구에 있어서 현재도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치쿠쿄는 2017년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븐(8월 중순)과 연말연시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안채와 한실 안내 투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른 1,500엔, 학생 1,000엔이며, 참가하려면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다실을 포함한 특별 공개는 월 1회 토요일에 개최되며, 요금은 어른 2,500엔, 학생 2,000엔입니다. 3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며, 투어는 일본어로만 개최됩니다.

조치쿠쿄와 부지

조치쿠쿄는 교토부 오야마자키초의 텐노잔 산에 있습니다. ‘햇살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시적인 이름은 일찍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대숲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 후지이는 예술 분야에서도 아호로서 사용했습니다. 후지이 집안의 저택으로서 사용되던 당시의 부지는 약 40,000m²로서 작은 주택이 2채, 어머니의 집, 창고, 가마, 목공 작업장, 테니스 코트, 그리고 풀 등이 있었습니다. 조치쿠쿄는 안채와 조용히 숙고하는 방인 한실,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다실의 세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채는 전통적인 일본 건축과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은 서양 건축이 독자적인 스타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마루와 다다미 부분이 있는데, 다다미 부분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은 눈높이가 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아치형 칸막이 벽으로 구획된 안쪽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이닝룸이 있습니다. 식사는 보통 미닫이문이 닫혀 있는 배식 카운터를 통해 주방에서 직접 날라옵니다.

객실 의자는 기모노를 입고서도 쾌적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후지이가 특별히 디자인한 것입니다. 넓은 도쿄노마에는 방과 도쿄노마 양쪽을 비추는 양방향 조명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서실에는 후지이와 아이들을 위한 책상과 책장, 그리고 찬장이 놓여 있으며, 벽에는 전통적인 와시(和紙)가 발라져 있습니다. 커다란 텃마루는 기둥을 없애 조망을 좋게 하는 등 디자인상으로 고려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문 위아래로 불투명 유리를 배치함으로써 건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정원의 풍경과 먼 곳의 경치를 프레임 안에 넣는 ‘액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이는 주택 전체의 설계와, 특히 여름의 더운 시기의 온도 관리를 위해 환경 공학의 전문 지식을 응용했습니다. 태양열로부터 방을 지키기 위해 건물의 길이를 계산해서 외부의 냉기를 거실 공간에 직접 끌어들이기 위해 천장에 통기구를 설치했고, 마루의 낮은 위치에는 지하를 통해 옥외의 낮은 땅으로 통하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콘센트, 난로, 스위스제 전기 냉장고 등 당시 이용 가능한 최신 기술과 설비를 갖췄습니다.

건축가 후지이 고지

후지이 고지는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유복한 양조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13년에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일본 종합건설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인 다케나카 공무점에 설계자로 채용되었습니다. 후지이는 1916년에 건설된 구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의 설계 등을 주도했습니다.

1919년에 퇴직한 뒤 후지이는 서양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9개월간 유럽과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이듬해에 교토제국대학(현 교토대학) 건축학과 창설자로부터 건축 도면에 관한 강의를 의뢰받았습니다. 오야마자키에 드넓은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건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실험적인 주택을 짓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후지이는 교토제국대학에 재적하던 중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꽃꽂이와 도예, 그리고 다도 등 일본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암으로 인해 49세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묘는 사가노의 니손인 절에 있습니다.